



중국 쓰촨 청두 변화가에 자리한 대자사. 2004년 증건된 대자사는 3~4세기 경 창건됐으며, 당나라 시기에는 신라 구법승 정중 무상 선사가 주석하며 선법(禪法)을 펼쳤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은 순례의 마지막으로 대자사를 순례하고 무상 선사 등 구법승들을 추모했다.



대자사 신도들이 도량을 돌며 아미타불 정근을 하고 있다.



대자사 개산일 기념 사진전에서 만난 무상선사비 개막식 사진.

신라 무상 선사의 구법 정신을 되새기며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 ⑤ 대자사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다. 여행의 끝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일상에서 살아갈 활력을 얻는다. 오명불학원과 아칭스를 순례한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지도법사 정우)은 마지막을 그 옛날 한국 구법승의 정신을 되짚었다.

아칭스를 뒤로 하고 찾은 순례지는 쓰촨(四川)의 성도(省都인 청두(成都)에 소재한 대자사였다. 대자사는 청두 시내 변화가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 주위에는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미 세워진 고층 빌딩들도 상당 수였다. 도심지에 있어서인지 대자사는 중국 사찰답지 않게 크지 않고 아담했다.

그래도 신행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조계종 동티베트 순례단이 7월 9일 오전에 대자사를 찾았을 때 사찰 신도들은 아미타불 정근하며 도량을 돌고 있었다. 정근하는 신도들 모두 진지했고, 높은 신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무상 선사의 주석처 대자사

대자사는 위진 시대인 3~4세기 경에 창건됐다고 알려져 있다. 현장법사가 622년 이곳에서 수계를 받았다. 대자사는 신라 구법승인 정중 무상 선사(680~756)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무상 선사가 청두에 머물고 있을 당시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고, 황제였던 현종은 환난을 피해 쓰촨성으로 도망쳤다. 피난 과정에서 환난의

이유가 애첩이었던 양귀비에 있다는 신하들의 주장에 양귀비를 죽였다. 또한 왕위를 태자에게 계승하기도 했다.

현종의 말년은 무상함과 회의감의 연속이었다. 그런 그에게 불교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였다. 현종은 대자사에 '대성자사'라는 현판을 하사하고, 무상 선사에게 이 사찰을 재건해 상주토록했다.

대자사는 당시 96개의 정원과 천여 폭의 벽화가 있을 정도로 당대 청두에서 가장 큰 도량이었다. 하지만 역사의 격랑 속에서 대자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현재의 사격을 갖춘 것은 2004년에 이르러서다.

사천왕문을 들어서면 관음전, 대웅전, 장경루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무상대상의 조사당과 찾집, 서예실, 요사채 등이 들어서 있다. 사찰을 증건했던 무상 선사의 정신을 지금까지도 기리고 있는 것이다.

순례단이 찾았을 때에는 사찰 개산을 기념하는 기념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사진전에는 무상 선사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불교의 학술대회, 무상선사 행적비 개막 등 교류 행사들의 내용과 결과 등도 전시됐다.

티베트 불교와도 만난 무상 선사

무상 선사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출가해 당나라에서 널리 구도행을 펼쳤다. 무상 선사는 신라 군남사에서 출가해 제방을 두루 참방하며 수도하다 46세이던 해에 바다 건너 당나라로 유학의 길에 올랐으니, 당 개원 16년(729)이었다. 그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



조사전에 걸려 있는 무상 선사의 진영.

신라 왕족으로 출가해 구도행 당나라서 더 유명... 나한 추앙

순례단, 대자사에서 추모제 열어 무상 선사 등 구법승 기려 한국 의례에 현지 불자 숙연 9박 10일 순례 일정 마무리

이르러 당 현종을 알현하고 선정사에 머물렀다. 끝없는 두타행으로 이어진 구도 행적 중에는 신이 한 이야기도 상당 수다. 맹수가 그를 호위하거나 산

속에서 5일 간 입정좌선한 이야기, 범과 생활한 이야기 등이 대표적이다. 입적 당시에는 90년 뒤 일어난 회향 법난을 예언하기도 했다.

당 개원20년(732) 4월 당시 고승이었던 처적은 제자 무상 선사를 불러 가사를 전수하고 "이 가사는 달마조사가 전한 법의인데, 무후에 의해 지선화상에 전해지고, 화상이 나에게 전한 것을 오늘 그대에게 전하노라. 그대는 스스로 잘 보호하여 나의 선법을 크게 선양하도록 하여라. 스승을 능가해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법이니, 그대는 정중사에 머물며 크게 정중선을 일으키도록 하라"고 후사를 부촉했다. 무상 선사의 정중종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구도 행적으로 무상 선사는 중국 500나한 중 455 번째 조사로 올라 있다.

사실 무상 선사가 알려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908년 20세기 불교사의 큰 수확인 돈황의 발굴과정에서 무상 선사의 계승인 '무상오경전(無相五更轉)'과 '무상어록(無相語錄)'이 발견되며 긴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1930년대부터 중·일 학자들 사이에 무상 연구가 지열하게 이뤄졌다.

중국의 석학 호적(胡適)과 일본인 학자 아마구치(山田瑞鳳)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무상 연구가 속속 나왔다. 그에 비해 국내 학계의 연구는 지극히 미미해 아쉬움이 많다.

무상 선사의 법맥은 남북종 분립 이전의 한국선의 원류를 살필 수 있게 한다. 5조 홍인 선사의 법맥에서 출발한 사천 선종을 집성한 정중종은 무상 선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마조 도일 선사로 이어지며, 또 그 영향은 신라에 까지 이어진다.

무상 선사는 사법 제자로 산시, 세르난 등 티베트 스님들을 두어 티베트에 불교가 도입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제자들은 티베트에 정중종선을 전하기도 했다. 중국불교가 티베트로 진출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무상 선사는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삶과 사상의 흔적은 중국을 넘어 티베트와 동황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 법맥은 한국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구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이날 조계종 순례단은 무상 선사의 진영이 모셔진 대자사를 찾아 참배하고 칠정례, 반야심경 봉독 등 한국 불교 의례를 봉행했다.

또한 정중 무상 선사와 도당 구법승 행적·현취 스님, 정중 무상의 사법 제자 산시·세르난 스님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의 사천학의 태두 서여·후스 선생 등을 추모하며 '화엄경' 법성계를 봉독하고 아미타불 정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추모제에서 지도법사 정우 스님은 화엄 법문을 통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다. 우리는 출가하면서 이미 길손이 됐다"면서 "동사법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이타없이 충실히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한국 순례단 스님들의 정연한 불교 의례에 현지 불자들의 이목도 집중됐다. 청두 대자사 신도 환메이 전 씨는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대자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일"이라며 "한국 불교 의례를 처음 봤는데 감동스럽고 환희롭다. 불법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글>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굴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옹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중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불타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